

# 도서관현상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김 영 기\*

## < 목 차 >

###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와 목적
2. 연구방법

### II. 부산지역의 도서관현상

1. 범주
2. 유래-양서협동조합
3. 현황
4. 노동도서관의 특성
5. 노동도서관의 위상

### III. 도서관 확산의 배경

1. 도서관과 지역사회
2.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3. 위치와 봉사 시간대

### IV.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1. 지역주민의 구성분포
2. 공공도서관 이용자인식에  
내포된 문제점
3.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V. 맺음말

참고자료

## I. 머 리 말

### 1. 연구의 필요와 목적

부산지역에는 1992년 현재 11개의 공공도서관과 2개의 분관(시민도서관 동래  
분관과 수정분관을 말함)이 있으며, 13개의 도서관(1)이 있다. 도서관법이 처음

\* 釜山工業大學校 圖書館 司書.

1) '도서관'이란 명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책을 매개  
로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공간을 말한다. 여기에 제시된 도서관의 수  
는 1992년 10월 말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다. 도서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  
는 데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어려운 점이 따른다. 우선 도서관의 봉사범위가

발효된지 20여 년만에 이 법의 개정문제로 도서관계가 돌아오르던 시기(1986년부터 1988년 중반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이 부산에 나타났으며, 도서관 소관부서에 관한 문제로 다시 논란이 일던 즈음(1990년 전반기)에 이르러서는, 그간 하나들씩 생겨나기 시작한 도서관이 이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도서관진흥법 제1조 제3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이 법적·제도적 보장속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도서관문화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좋은 책과 다양한 문화매체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일꾼도서관 회칙 제3조 목적중에서) 자생적인 도서관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며 또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현상’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보완해 주는 측면 보다는 ‘도서관문화’로부터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온 주민들이, 이러한 소외현상을 자발적으로 극복해 나가려는 주민운동적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 동시에 도서관현상은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게 한다. 먼저 도서관이란 무엇이며, 도서관의 성립과정과 배경은 어떠한가? 도서관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으며, 공공도서관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비해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서관의 강점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

지역적으로 그리고 사업장 단위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다는 점, 둘째, 특히 교양도서관의 경우 서로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한 점조직의 형태로 분포하기 때문에 도서관간의 추적을 통한 조사도 여의치 못하다는 점, 셋째, 이러한 도서관들은 관원부처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수치는 다음 장에서 정한 도서관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만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있는가 ?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해결의 실마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조명되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도서관현상'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시도된다. 그러나 '도서관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 연구자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신문의 사회면 기사거리로 가끔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서관현상'에 대한 자료의 발굴과 분석의 시도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헌정보학 연구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목적의식에 따른 논의의 진행으로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의 발견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②에 대한 해명을 추가로 필요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내의 하부구조의 하나로서 도서관이 확산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사회가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측면과 그 요인에 대한 것으로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현재적 이용자의 차이가 내포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현재적 이용자의 구성분포와 지역주민의 구성분포와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를 확대③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앞의 몇가지 의문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관점이라면, 여기에 제기된 문제들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에 놓고 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기서의 '확대'란 말은 현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단순히 어떤 층을 도서관으로 더 끌어들이는다는 의미보다는 '이상적인 이용자층'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상적인 이용자층'은 본문에서 '기본 이용자'라는 용어로 표시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들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도서관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공공도서관과 비교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한 측면, 즉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결국 이 논문은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순차적인 해명을 함으로써, 도서관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다는 이 연구의 목적에 접근하게 된다.

## 2. 연구방법

'도서관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은 '도서관현상'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서관현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된 형태라기 보다는 사회상황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변화에 의해 끊임없이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특히 아직은 도서관이 정착의 단계라기 보다는 겨우 태동기를 지난 발전의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이므로 변화의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형태 또한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역사적인 접근방법을 지향하며, 경험적인 자료의 발견과 재구성을 통해서 도서관적 현상의 주요측면들을 충실히 드러내 보이는데 보다 치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4)</sup>

도서관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대부분의 자료를 원시자료<sup>5)</sup>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서관에 관련된

4) 김석준교수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통계적 검증 이후에야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가설을 상정하는 가설검증법이나, 미리 구성된 특정한 이론틀이나 개념 도식에 맞추어 사실을 도출해 내려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을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러한 접근법이 경험주의에 매몰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석준, *경제변동에 대한 지식역사의 계급적 대응 -1980년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1992. p.16.)

5) 책이나 논문, 또는 보고서로 작성되기 전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뜻하는 말로 쓰여졌다. 원시자료에는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구중자료

원시자료로는 몇개 도서관의 회칙, 행사선전용 유인물, 도서관 소식지, 도서관 회원 또는 실무자<sup>6)</sup>들의 내부적인 토론자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 역시 정리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거나 일부 자료는 이미 유실되어 버렸으며, 더구나 도서관들이 지니는 어느 정도의 배타성으로 인해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sup>7)</sup>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또다른 원시자료에 의해 보충되어야 하였기에 주로 도서관 실무자들과의 면담, 회원들과의 면담, 도서관 활동에 대한 일시적인 참여<sup>8)</sup>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관련자료를 확보하였다.

한편 이 부분의 구성을 보면, 도서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선행한 뒤에야 각종 현황과 분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직은 도서관이 완성된 형태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도서관의 범주를 정한 다음 그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도서관의 특성과 강점을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도서관의 정체를 도출해 내는 다소 형식이 전도된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서관 자체에 대한 조사·분석작업이 진행되고 나면 다음으로 도서관 확산의 배경과 요인을 추적하게 된다. 도서관과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본 다음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몇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도서관이 확산하게 된 요인을 밝혀 본다. 여기에 덧붙여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위치 및 봉사시간대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도서관이 번성하게 된 요인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

다음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현재적 이용자의 차이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

나 실험, 기억속의 경험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자체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해 오듯이 자료를 단순히 1차자료와 2차자료로 구분할 경우, 여기에 예시된 자료들은 그 소속이 애매해 질 가능성이 있다. 보통 1차료는 주로 도서, 잡지, 논문, 보고서 등을 의미하며, 색인이나 초록 등을 2차자료로 일컫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시자료는 원자료라고도 말할 수 있다.

- 6)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7) 대부분의 도서관 실무자들은 어느정도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자신들이 보유한 상당부분의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 물론 외부로의 유출이나 복사가 허용되지 않은 자료들도 다수 있었지만 거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 8) 직접적인 참여라기 보다는 주로 소모임 자리에 함께 앉아 그 내용을 관찰하는 정도였다.

적인 의미를 찾는 단계이다. 지역주민의 계급·계층별 구성비율을 보임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이상적인 이용자 분포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현재의 공공도서관 이용자 분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연구자와 현장사서가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를 어떻게 인식하며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연구자의 경우는, 이용자연구에 관련된 논문의 주제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사서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이 펼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각각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와 현장사서가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도서관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본 다음, 공공도서관의 본질적인 이용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이용자인식의 새로운 틀로서 '기본이용자' 개념의 도입을 제시함으로써 이 논문은 끝을 맺게 된다.

## II. 부산지역의 도서관현상<sup>9)</sup>

### 1. 범 주

도서관이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로 우선 명칭이 다양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서관들은 대개 도서관, 도서관대여실, 주민도서관, 노동자료실, 노동자료연구실, 문화원 등의 표현을 각자의 고유명사 앞이나 뒤에 붙여쓰고 있는가 하면, 도서관의 범주에 묶일 수 있는 다른 어떤 곳은 아예 단체의 이름만을 쓰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도서관들이 띠고

9) 도서관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대학원 과정의 일환으로 한차례 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다. 여기에 나타난 제2장과 제3장은 당시의 조사연구를 토대로 최신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첨가한 것이다. 학기과정 중의 도서관 연구가 실태조사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공공도서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실천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김영기, "부산 경남지역 도서관운동의 실태", 학기는교섭(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제1집(1991). pp.134-143 참조.

있는 형태 또한 도서관의 정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도서관들은 씨름이나 동호인들의 모임같은 형태, 사회운동체적인 형태, 사회복지단체적인 형태 등의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외에도 도서관들은 주요활동이나 목적, 봉사방법, 회원 구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다양성을 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도서관에 대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도서관이 최근에야 태동하기 시작한, 아직은 실천적인 경험이 무르익지 않은 태동기의 사회현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관련된 일련의 현상들은 어느정도의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바로 이점이 도서관현상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범주에 대해서 외연의 확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 범주에 포함된 제 현상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도서관현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기로 한다.

첫째, 임대 또는 소유 등의 방법으로 상시적인 실내공간을 보유하고 있을 것.

둘째, 시설과 장서를 관리하고 봉사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을 것.

셋째, 적어도 500권 이상의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을 것.

넷째, 문화적 목적이 상업적 목적 보다 우선될 것.

다섯째,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일정한 수 이상의 상시적인 회원이 있을 것.

여섯째, 회원의 자격에 제한이 없을 것.

마지막으로 도서관진흥법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일 것.

따라서 상업적 목적의 유료 도서대여업체나, 관주도의 성격이 짙은 마을문고 등은 도서관의 범주에서 제외되며, 장서의 규모나 회원수가 아주 적은 몇몇 곳 역시 이 글의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모임 자체에 중점을 둔 채 회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일부 단체의 도서실도 논외로 하기로 한다.

2. 유래 - 양서협동조합<sup>10)</sup>

공공도서관이 설립되기 이전의 형태로서 서양의 경우, 개인문고, 독서클럽(독서회), 교구도서관, 유료대출도서관, 회원제도서관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양으로부터 공공도서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개인문고와 독서회 등이 존재했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에는 독서클럽이 자연스럽게 회원제도서관으로 발전되어<sup>11)</sup> 공공도서관 태동의 직접적 바탕이 되었지만, 우리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그 이전 형태의 자연스러운 연장이 아니라 문화충격<sup>12)</sup>의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독서회<sup>13)</sup> 등은 야학을 거쳐<sup>14)</sup> 오늘날의 도서관으로 이어지

- 10) 이에 관련된 자료는 당시의 일간지는 물론 유인물의 형태로도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단지 그 당시에 이 조합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억속에만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조합의 실무책임자였던 김희옥(현재 대연여자중학교의 교사이며, 부마항쟁기념사업회장)과 전중근(조합원이었으며, 최초의 도서관인 아름도서관의 설립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얻어낸 구증자료에 바탕하고 있다.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위원들과의 인터뷰,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사무실. 1992. 7. 9, 18:40-20:30. 민행기(부산공업대학 도서관 사서), 김희옥, 전중근)
- 11) 정필모, 오동근, 도서관 문화사. 서울 : 구미무역, 1991. p.122.
- 12) 문화충격(cultural shock)이란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만났을 때 그 이질성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 말을 쓴 어사임은 미국의 사서들이 자국의 방식을 발전도상국에 강대함으로써 저질러온 실수를 교정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제도의 도입은 어사임이 말하는 문화충격과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레스터 어사임 저, 김정근 통역, 발전도상국의 도서관. 서울:한국도서관협회, 1970. 서문에서 재인용)
- 13) 독서회란 친목성의 모임과 개인문고가 결합하여 나타난, 책을 매개로 한 동료들의 작은 모임을 말한다. 이러한 독서회는 동서양에 함께 존재했지만, 근대사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나타난 서양의 독서회와 일제시대에 번성한 우리나라의 독서회는 여러가지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서양의 경우 독서회(독서클럽)는 회원제도서관의 직접적인 바탕이 되었으며, 결국은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0명 안팎의 중류층 시민으로 구성되어 문학과 사교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책의 분배와 구입이 주된 활동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독서회는 계몽과 독립의식의 고취를 위해 학생층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해방을 맞으면서 그 모습을 감추었으나, 그 경험은 야학을 거쳐 오늘날의 도서관으로 이어내려 오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정필모, 오동근. 위의글. p.122.)
- 14) 우리나라의 야학은 일제시대의 야학과 1970년대 이후의 야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제시대의 야학은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여 1930년대 말까지 전국에 수백개소 이상이 설립되어 활동하였으며, 소외된 피식민지민 자신들의 한 사회교육적 기능, 근대화의 계몽과 민족운동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노동운동으로서의 기능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1970년대 이후의 야학은 학생운동의 연장으로서의 현장활동, 노동운동의 일부분으로서의 야학,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매개체, 제도교육 미수혜자에 대한 검증교시 야학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처럼 야학은 그 형태상으로 보아 오늘날의 도서관과 같은 범주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야학이 1920년대의 독서회나 오늘날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민족의식의 고취와 계몽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어, 성격상 하나의 동일한 호



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맥을 이어오고 있다.<sup>15)</sup>

한편 '도서관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양서협동조합을 꼽을 수 있다. 양서를 조직적으로 권하는 첫 모임으로서의 양서협동조합은 '도서관현상'을 이야기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다. 유신말기인 1977년 9월경, 부산중부교회<sup>16)</sup>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매주 모여 생활담소와 시국토론을 해 오던 중, 토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사업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 그 출발이 된다. 이들은 약 7-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1978년 4월 5일에 부산 YMCA강당에서 정식으로 창립되게 되는데, 교수와 목사, 그리고 변호사가 주된 창립 조합원이었다.<sup>17)</sup> 양서협동조합을 도서관의 직접적인 전신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이 조합이 펼친 주요 활동과 특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식의 면에 있어서, 조직의 형태를 협동조합<sup>18)</sup>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최종적인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결정하기까지에는 조합정신과 활동사태 등에 대한 상당히 깊이있는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당시의 조합원은 증언하고 있다. 특히 당시에 조합활동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여겨진 캐나다의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했다고 한다. 협동조합에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네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약자간의 상부상조에 있다는 것,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 전조합원은

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송정편집부 편, 학생운동 논쟁사. 서울:일송정, 1988. pp.227-269; 미간본 팜플렛, 약학비판, 1982.)

- 15) 물론 이부분에 대한 서양과 우리나라의 비교는 약 200년의 시차와 함께 공간적인 틀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이며, 또한 충분한 역사적인 고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현상으로 볼 수 있는 관외적인 민간주도의 움직임도 포함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서서 도서관사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16) 당시 이 교회는 최성목 목사가 청년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7) 김광일 변호사, 이흥록 변호사, 송보경 교수 등이 참여한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 18) 참고로 협동조합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된 소생산자(농민과 수공업자)와 노동자가 자본의 지배를 방어하면서 경제적인 열악성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한 결사체를 뜻한다. (한국사회연구소 편, 사회과학사전, p.661-663. 서울 : 풀빛, 1990.)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는 출자액의 다소에 따르지 않고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서 실시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네가지 기본원칙은 양서협동조합의 운영에 충실히 지켜졌으며, 이점은 최근의 도서관에 이르러서도 비교적 잘 유지되는 원칙이기도 하다.<sup>19)</sup>

둘째로 조합의 운영방식이 회원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회원수는 평상시에도 500명을 웃돌았으며, 많을 경우는 700명을 넘어선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원의 구성을 보면 학생과 노동자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야운동가<sup>20)</sup>들도 대거 참석하여 부산의 베네치아로 불려졌다고 당시의 조합원들은 증언한다. 한편 이 조합에는 직영 서점이 있었는데, 부산 보수동에 있는 건물을 세내어 1층은 서점으로, 2층은 조합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조합원들은 이 서점의 2층공간에 모여 각종 취미활동과 함께 주로 도시문제와 농촌문제에 대해 독서하고 토론하였다. 회원제운영과 조합원들의 일상활동 및 노동자 중심의 조합원 구성 등은 최근의 도서관 상황과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이 조합이 벌여온 활동의 측면이다. 이 시기에 대중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누렸던 책은 사회의식적인 내용을 다룬 책과 외설적인 책으로 양극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합은 주민독서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추진하게 된다. 회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로 활동의 폭을 넓히게 된 이 운동은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이 조합은 주민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양서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몇몇을 들어보면, 불의에 항거하며 진리를 알리는 책, 작가의 진실이 나타난 책, 시대의 양심을 밝히는 책 등으로서<sup>21)</sup>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는

19) 본문에서 지적한대로 협동조합이 자본구성체가 아닌 인적구성체라는 점 외에도 이들이 협동조합의 형식을 고집한 이유로 협동조합주의를 상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협동조합주의는 사회연대주의의 기초 위에서 소비자가 단결하고 정당가격의 실현으로 이윤을 배제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주의가 건설된다고 하는 극히 소박한 사상경향을 말한다. (동아원색 대백과사전, 29권, p.214. 서울: 동아출판사, 1986.)

20) 여기에 참여한 대표적인 재야인사로는 황석영, 김남주, 이태복 등을 들 수 있다.

조심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점 역시 최근의 도서관이 회원중심에서 지역주민들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여기에 또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양서협동조합과 도서관이 모두 부산에서 태동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양서협동조합이 성립되자 서울과 인천 및 광주 등지에서 그 모범을 따라 배우고자 자문해 왔으나 이들 지방은 설립의 추진 단계에서 모두 와해되었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한편 '도서관현상' 역시 부산에서 태동하여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이들 지방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책을 매개로 한 조합형태의 모임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방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으나, 1979년 말의 비상계엄으로 모두 와해되었으며, 양서협동조합 역시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sup>21)</sup>

양서를 조직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최초의 모임이며, 협동조합의 방식을 도입한 보기드문 조직형태인 양서협동조합은, 조합정신의 채택과 회원제 운영방식, 주민독서운동 전개 등의 활동내용을 종합해 볼 때, 1980년대 후반기에 부산으로부터 불붙기 시작한 '도서관현상'의 직접적인 바탕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 3. 현 황

부산지역에는 모두 13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성격상으로 노동도서관과 교양도서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sup>22)</sup>

노동도서관은 '도서관협의회'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국민운동단체인 '국민연

21) 여기에 든 것 이외에도 기준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세가지 뿐이다. 또한 여기에 제시된 기준들은 다분히 모호하여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어느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로 어느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나에 중점을 두어 양서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데, 지금은 동년출판사로 바뀐 광민사와 한길사에서 나온 책들을 특히 양서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22) 당시 이 조합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문화를 꽃피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을 상당히 신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9년 10월 16일의 부마항쟁에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게 되어 비상계엄하에서 강제해산되게 되었다.

23) 노동도서관이라는 말은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고 있으며, 교양도서관은 연구자가 편의상 노동도서관과의 비교를 위해 적당한 말을 찾아 넣은 것이다.

합' 24)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서, 회원의 대다수가 노동자이며, 노동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 범주에는 최초의 도서관인 아람도서관을 비롯하여 햇살, 일꾼, 들불, 늘푸른, 일사랑, 광장, 한돌, 삶터 등의 9개가 있으며, 부산근교인 양산에 움터도서관이 있다.25)

이에 비해 교양도서관은 그 회원의 대부분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서 또한 소설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도서관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부산지역의 다른 도서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러기 문화원을 비롯하여, 여래사, 책과 이웃, 청심자 등의 네곳과 마산의 일사랑 등이 포함된다.26)

#### 가. 노동도서관

노동도서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동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며, 회원의 대부분이 노동자로 이루어진 도서관을 말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도서관이며, 다른 '도서관현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도서관은 부산진구에 자리잡은 아람도서관이다.

아람도서관의 설립자는 앞절에 나타나 있는 양서협동조합의 회원으로 있던 전중근이며, 1987년의 6월 항쟁과 6.29선언으로 확보된 열린공간을 시대적 배경

24) 1990년 4월 21일 결성된 전국적인 국민운동단체. 전노협, 전민련, 전교조, 전농, 빈민연 등의 거의 모든 재야운동단체가 가입하였다.

25) 여기에 부산지역의 도서관을 이야기하면서 양산의 움터도서관을 포함하는 이유는 다음의 다섯가지이다. 첫째, 움터도서관이 부산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다. 둘째, 양산지역의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움터도서관의 회원 또한 대부분이 부산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 부산의 9개 도서관과 함께 움터도서관이 도서관협회에 가입되어 연대활동을 벌여왔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도서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부산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의 경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두 10개의 노동도서관을 분석하게 된다.

26) 한편 경인지역에도 약 20여곳의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국사서협회가 조사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단계이다. 경인지역의 도서관은 노동도서관과 교양도서관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소의지역에 뿌리내리는 작은 도서관운동, 출판저널, 1992. 2. 20, pp.24-25). 한편 부산지역 도서관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광주지역에서도 도서관 설립을 위해 부산지역 도서관의 경험을 얻고자 찾아온 적이 있으나 아직은 시도단계라고 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노동도서관은 부산지역만의 독자적인 운동형태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역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다음절에서 좀 더 자세히 진술될 것이다.

으로 하고 있다. 그는 양서협동조합의 경험을 되살려, 책을 매개로 한 시민사업을 구상하게 되는데, 서울의 글사랑<sup>27)</sup>에서 힌트를 얻어 도서관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책을 매개로 한 시민의식의 고양'이라는 목표를 세운 다음, 후배 5-6명과 함께, 300여권은 스스로 기증하고 700여권은 구입하여 그 해 7월에 개원을 하게 된다. 당시의 장서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과 '일반인이 보는 책'을 1 대 1로 구성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그는 기억한다. 아람도서관은 한달에 1,500원의 회비를 내면 회원으로 등록되어 각종 모임의 참석과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회원이 한달이 채 되지 않아 200명을 넘어섰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설립과 동시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는 명칭을 정함에 있어 '알다'라는 뜻의 고어인 '아람'과 함께 '도서관'이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도서관이라고 했을 때의 '官'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동체라는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생각해 내었다고 한다. 이것이 다른 여러곳에서도 '도서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유래가 된다.<sup>28)</sup>

아람도서관의 성공 이후 다른 여러 곳에서도 주로 공단지대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생겨나게 되는데, 1992년 말 현재 이들 도서관의 전체적인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람도서관

- 설 립 : 1987년 7월      ◦ 소 재 지 : 부산진구 부전2동 (전화:807-7589)
- 회원수 : 150명        ◦ 중심회원 : 서면 및 중앙동 지역 사무직 여성
- 장서수 : 4,300권      ◦ 소 식 지 : 계간 아람, 5호 발행.
- 소모임<sup>29)</sup> : 산사랑(등산반), 한여름(노래반), 시사토론반, 생활문화반, 풍물반.

27) 요즈음의 비디오 대여업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로 운영되는 도서관대여업체라고 한다.

28) 한편 그가 명칭문제와 함께 공공도서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다 해준다. 따로 '사설'로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어느 일본인의 말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다.

## 14 圖書館學論集

### 2) 햇살도서관

- 설 립 : 1988년 4월 1일    ◦ 소 재 지 : 북구 감전2동 (전화:327-1107)
- 회원수 : 110명            ◦ 중심회원 : 사상, 감전동 지역 노동자
- 장서수 : 5,000권         ◦ 소 식 지 : 격월간 햇살, 4호 발행.30)
- 소모임 : 하나패(풍물), 소리터, 메아리(등산)

### 3) 일꾼도서관

- 설 립 : 1989년 9월        ◦ 소 재 지 : 진구 가야3동(전화:892-3258)
- 회원수 : 110명            ◦ 중심회원 : 가야, 개금지역 노동자
- 장서수 : 3,500권<sup>31)</sup>       ◦ 소 식 지 : 격월간 일꾼, 15호 발행.
- 소모임 : 기타반, 풍물반, 등산반, 문학반, 축구반.

### 4) 들불도서관

- 설 립 : 1989년 4월 8일    ◦ 소재지 : 북구 덕포1동(전화:328-3314)
- 회원수 : 250명            ◦ 중심회원 : 덕포동지역 노동자
- 장서수 : 3,300권         ◦ 소 식 지 : 계간 목소리.<sup>32)</sup>
- 소모임 : 등산반, 풀이패, 기타반, 도서편집부, 교육부, 재정부, 신입부.

### 5) 늘푸른도서관

- 설 립 : 1989년 9월 3일    ◦ 소 재 지 : 남구 대연3동(전화:621-9659)
- 회원수 : 170명            ◦ 중심회원 : 학생, 지역주민<sup>33)</sup>
- 장서수 : 4,000권         ◦ 소 식 지 : 계간 그루터기<sup>34)</sup>

29) 소모임의 경우 대부분이 수명이 짧으며, 회원이 변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1992년 말 현재의 소모임의 명칭과 종류이다. 괄호 안에 나타난 것은 명칭만으로 소모임의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것들이다. 이하도 같다.

30) 4호까지만 발간되고 폐간됨.

31) 이 도서관은 장서의 수가 작년의 4000권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장서를 점검하면서 도서관의 기본목적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일부 처분했기 때문이다.

32) 목소리는 회지의 성격이 강하며, 이와는 별도의 소식이 지가 소모임별로 월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33) 도서관 설립당시에는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일반인이 더 많아졌음.

34) 재정상의 문제로 폐간되고 '늘푸른소식'이 주간으로 게시판에 게시됨.

- 소모임 : 노래반, 풍물반, 역사반, 독서토론편, 시사토론편.

6) 일사랑도서관

- 설 립 : 1989년10월14일 ◦ 소 재 지 : 금정구 서2동(전화:529-8519)
- 회원수 : 60명 ◦ 중심회원 : 동래, 금사동 지역 노동자
- 장서수 : 2,000권 ◦ 소 식 지 : 월간 일사랑, 11호 발행.
- 소모임 : 기타반, 풍물반, 등산반.

7) 광장도서관<sup>35)</sup>

- 설 립 : 1990년 1월 21일 ◦ 소 재 지 : 사하구 감천1동(전화:201-0859)
- 회원수 : 150명 ◦ 중심회원 : 신평, 장림지역 노동자
- 장서수 : 1,500권 ◦ 소 식 지 : 계간 광장, 10호 발간.<sup>36)</sup>
- 소모임 : 글터분과, 민속분과, 소리터 분과, 시사토론편 분과

8) 한돌도서관

- 설 립 : 1990년 2월 10일 ◦ 소 재 지 : 사하구 괴정4동(전화:29-9825)
- 회원수 : 100명 ◦ 중심회원 : 신평, 장림지역 노동자
- 장서수 : 3,500권 ◦ 소 식 지 : 없음
- 소모임 : 풍물반, 등산반, 기타반

9) 삶터도서관

- 설 립 : 1990년 7월 ◦ 소 재 지 : 영도구 영선2가(전화:416-9573)
- 회원수 : 120명 ◦ 중심회원 : 영도지역 주민
- 장서수 : 4,000권 ◦ 소 식 지 : 격월간 삶터, 4호 발간.
- 소모임 : 누리(풍물), 소리하나, 푸른산악, 통소반.

35) 유일하게 설립 당시부터 실무자가 없는 도서관이다. 회원들간에 추천과 선거를 통해 다른 도서관의 실무자에 해당하는 일을 해 나갈 사람을 뽑는다. 다른 도서관이 회원을 도서관의 운영에 참여시키고 있는 단계라면, 이 도서관의 경우는 '경영'과 '이용'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

36) 이와는 별도로 분과소식지 '감은소리'도 발간되고 있다.

10) 움터도서관<sup>37)</sup>

- 설 립 : 1990년10월 29일
- 소 재 지 : 경남 양산읍 중부동(전화:84-1629)
- 회원수 : 170명
- 중심회원 : 양산지역 노동자
- 장서수 : 2,500권
- 소 식 지 : 없음
- 소 모 임 : 독서토론편, 시사토론편, 기타노래반.

나. 교양도서관

교양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점과 그 재원이 세금이 아닌 회원의 회비와 설립자의 개인재산이라는 점, 그리고 유료이용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 범주에는 기리기문화회원과 책과 이웃, 여래사, 청십자, 그리고 마산의 책사랑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교양도서관들은 노동도서관과는 달리 서로간의 교류가 거의 없지만, 운영방식이나 활동 등은 서로 유사하며, 특히 이들 도서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사내용은 공공도서관의 문화행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교양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기리기문화원을 중심으로 교양도서관의 개략적인 모습을 살펴 본 다음, 여타 교양도서관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기리기문화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84년 6월 1일 현 원장으로 있는 조점동씨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해 9월 1일 '시민생활독서운동'의 전개와 함께 지역신문인 '우리동네'를 창간했다. 우리동네는 월간으로 발행되며, 매월 5천여부가 문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sup>38)</sup> 또한 1986년 10월 16일 '기리기교양대학'을 개설하여, 1991년 6월 13일 부산직할시 교육청에 의해 사회교육단체로 인가받게 되었다. 그리고 1987년 7월 8일 '기리기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1991년 9월 10일 자체건물을 매입하여 이전개원하였다. 현재

37) 1992년 3월 2일 부로 '양산지역 노동자협의회'로 명칭과 위상을 전환하였다.

38) 월간 우리동네는 8면 타블로이드판으로 나오며, 각 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면 : 이달의 명언과 문화원 행사 소개, 2면 : 문화원 소식, 3면 : 생활정보, 4면 : 주민문예란, 5면 : 독자투고란, 6면 : 마을소식, 7면 : 지역광고, 8면 : 칼럼.



는 항구적인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 공익법인으로서의 인가를 추진중이다.

다음으로 규모, 장서, 회원의 현황을 보면, 복합건물의 2층, 50여평의 공간에 100석을 갖춘 강의실과 전시장, 그리고 서고를 갖추고 있으며, 5,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장서내용은 대부분이 소설과 수필 등이며, 아동도서 500여권과 함께 10여종의 교양 월간지도 구독하고 있다. 도서관들 중에는 유일하게 책동에 한국십진분류법을 사용한 레이블을 붙여 놓았으나 대부분이 813 또는 814이므로 별로 유용성은 없는것 같다.<sup>39)</sup> 장서의 반정도는 항상 대출중인데, 보기도문 왕성한 대출기록이다. 소장도서의 내용으로 보아 이 도서관은 주로 주부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원 역시 주부들과 사무직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회원카드의 일련번호는 4천번에 이르고 있지만, 월회비를 꾸준히 내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회원은 300명 정도라고 한다. 노동도서관에 비해 회원의 변동이 훨씬 심한 편이다. 회원은 가입비 2,000원과 월회비 1,500원을 내면 되는데, 회원별로 회비납부 상황을 보여주는 회원증과 도서이용 실적을 나타내는 대출카드를 있으나 목록은 보이지 않는다. 서가의 배열에도 원칙이 발견되지 않는다.

기러기문화원은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강좌와 전시회, 소모임의 운영과 모금운동 등의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강좌로는 한문교실, 음악교실, 서예교실, 꽃꽂이교실 등의 생활문화강좌, 독서교실, 문예교실, 예절교실, 기타교실, 학습교실 등의 청소년강좌, 교양대학, 독서대학, 주부학교 등의 평생교육강좌 등을 개설하여 왔으며, 또한 사랑의 금고를 운영하여, 불우주민 지원운동도 벌여왔다. 소모임으로는 등산반, 풍물반, 문예창작반이 있으나, 이러한 소모임이나 강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항시적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참석자는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강좌의 경우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으며, 일부강좌는 약간의 참가비를 받

39) 실무자 중의 한사람의 친구가 도서관학을 전공했다고 한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분류번호 레이블 부착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도 한다.

다음으로 책과 이웃을 보면, 1988년 중구 중앙동에 개원하였으며, 2명의 실무자가 4천여권의 장서로 500여명의 회원에게 봉사하고 있다. 가입비 3,000원과 월회비 3,000원을 내거나 책 1권당 500원을 내면 장서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책과 이웃은 도서관과 유료도서 대여업체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구 초량동의 여래사의 사정도 이와 별 다른 없다.

한편 청십자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청십자병원의 설립자인 장기려박사의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사업과 함께, 1991년 6월, 남구 용호2동에 도서관을 개원하였다. 150명 정도의 회원에 대부분이 소של류인 2,000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이 도서관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요일은 휴무일.) 개원하는데, 회비는 가입비가 2,000원이며, 월회비가 1,500원이다. 이 도서관에 회칙이나 소식지, 도서관 자체의 행사나 소모임등은 전혀 없다.<sup>40)</sup> 이 도서관은 사회복지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교양도서관은 부산지역에 넷이 있는데, 조금씩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기러기문화원은 공공도서관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책과 이웃은 유료 도서대여 업체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띠고 있다. 그리고 청십자도서관의 경우는 사회복지단체의 성격과 함께 독서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장서구성이나 행사내용으로 보아, 이런 종류의 도서관은 주된 봉사대상을 지역주민, 특히 주부들과 학생들로 상정하고 있으며, 마을유지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성격도 띠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노동도서관의 특성

이들 도서관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성 몇가지를 제시하면 다

40) 청십자도서관 실무자 유훈상과의 인터뷰. 청십자도서관 사무실, 1992. 10. 13.  
18 : 30 - 19 : 10.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그 운영의 측면을 보면,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서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월 3천원에서 5천원의 회비를 내면 회원으로 가입되며, 회원은 언제든지 1회 2권씩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도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원제로 운영되므로 회원과 실무자 그리고 회원 서로간에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각 회원의 처지와 요구에 대해서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잇점이 있다. 여기서 실무자란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도서관마다 두세명의 실무자가 있다. 이들은 아무런 보수도 받지않고 일하는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들이며, 도서관자료의 수집과 정리, 봉사업무와 함께 도서관 운영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무를 처리한다. 이들은 또한 회원들을 위한 각종 취미소모임을 꾸려나가며, 이러한 모임에 직접 참가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등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노동과 삶에 관한 자문과 조언자의 역할도 수행해 낼 수 있게 된다. 회원제운영이라는 점, 그리고 실무자들의 지식과 봉사정신이 한데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이용자중심(useroriented)의 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도서관의 회원을 위한 소모임과 행사내용에 관한 부분이다. 각 도서관들은 시사토론회, 문학반, 기타(노래)반, 풍물반, 등산반 등의 소모임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회원의 대부분이 이런 소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sup>41)</sup>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회원들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과 함께, 이러한 소모임과 관련된 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모임이 갖는 인격적인 유

41)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소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도 있다.

대관계와 여러가지 취미활동 등은 자료와 시설만큼이나 회원들에게 매력점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소모임의 규칙을 정하며 독자적인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기도 하는데, 다른 도서관의 소모임과 함께 공동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 풍물패 연대모임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도서관의 활동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① 월 2백-3백권의 도서대출에 따르는 업무 ② 자료에 대한 상담과 도서목록 작성 ③ 월 20-30명에 이르는 가입, 탈퇴 회원의 관리업무 ④ 정기적인 자체의 소식지 발간 ⑤ 3-7개의 소모임 운영과 행사 주최 ⑥ 각종 기초교양 및 노동강좌 등의 교육활동 ⑦ 각종 집회의 참여 ⑧ 회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상담사업 ⑨ 노동일반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이 그것이다.<sup>42)</sup> 구체적인 행사를 보면, 독서토론회 개최, 시사영화 상영, 회원만남의 날, 여성교실, 등반대회, 공동 문화공연 관람, 초청강연회, 체육대회, 간담회, 작가와의 만남 등이며, 이러한 행사들은 개별 도서관 단위로, 또는 도서관 연합이나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와 시설만을 갖춘 채로 누군가가 이용하기만을 기다리는 공공도서관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셋째로 도서관들의 위치를 보면, 대부분이 공단지역이나 그 주변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단의 노동자를 주 회원으로 상정한 도서관 설립자의 의도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도서관의 주된 회원은 공단의 노동자가 되며 부분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서면의 아름도서관과 남구 대연동의 늘푸른 도서관은 같은 노동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면서도 위치나 회원구성에 약간의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도서관 설립의 시기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아름도서관의 경우 그 회원이 사무직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름이 도서관운동의 첫 시도로서, 도서관이 아직 노동운동의 지원이라는 성격을 지니기 이전에 주민운동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시기에 설립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해 볼 수 있

42) 이경희, “노동도서관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역과 노동*, 제8호(1990). pp.132-140.

으며, 늘푸른도서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1989. 5.28)의 영향으로 도서관 영역의 확대를 의도한 도서관협의회 조직적 노력의 결과에 기인한 탓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도서관이 중소기업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도서관의 존재가 쉽게 알려지며, 언제라도 들러볼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넷째는 장서구성의 측면이다. 노동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도서관의 장서는 한결같이 사회과학류에 치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학 관련 서적이 가장 많으며, 정치학, 철학, 역사, 법학, 문학분야의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다. 장서의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자료에 어떤 통일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회과학, 철학, 문학 등의 모든 자료는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일색인 것이다. 즉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철학은 노동자의 철학이며, 문학은 노동현장의 글모음이며, 법학은 노동법 및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학인 것이다. 정기간행물도 도서관마다 5종에서 15종 정도를 구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진보적 성격의 잡지들이다. 여기에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자료는 각 사업장별 현황과 노동운동관련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각 사업장별로 또는 내용별로 조직되어 있는데, 각종 빠라와 회의록, 행사선전용 유인물을 비롯하여 대자보에 나붙었던 글들까지 부분적으로 수집되어 활용되고 있다. 도서관의 회원과 실무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수집가이기도 하다.

도서관의 장서들은 대부분이 구입된 것들이며, 회원들이 기증한 것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회원들의 도서기증을 의무화하고 있기도 한다. 한편 도서구입비는 도서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월 10만원 안팎이다. 항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입할 자료를 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도 꾸려져 있는데, 일꾼도서관의 예를 보면, 각 소모임의 책임자(분과장이라고 불린다.)와 이용률이 높은 회원 및 실무자가 공동으로 적은 돈을 쪼개어 구입할 책을 선정하고 있다. 이용자를 직접 자료구입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들이 서로 하나의 조직체로 연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도서관의 특성이자 강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들은 「부산경남지역도서관협의회」를 결성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실무자들간의 모임, 회원교류를 통한 정보교환과 함께 독서토론회, 교양강좌, 작가와의 만남, 체육대회 등의 공동행사도 벌여오고 있다.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끼리 서로 연대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특히 도서관처럼 규모가 작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의 연대는 꼭 필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한편 도서관끼리의 연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부산인문사회과학서적상연합」(나라사랑, 디딤돌, 여래사, 청명, 청산)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도서정보'지의 발간이 주요 사업이다. '도서정보'는 1991년 5월의 준비호 발간 이후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별적 부분적으로 도서정보를 제공해 오던 것을 극복하고, 부산경남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정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도서정보의 제공을 위해 독서문화의 창달과 올곧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준비호, p.2)이라고 그 발간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도서정보지의 주요내용은 새책 소개와 권장도서 안내, 그리고 많이 읽힌 책과 많이 팔린 책, 작가와의 만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서정보지의 권장도서 안내는 단순한 책 소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 5. 노동도서관의 위상

앞에서 도서관의 범주를 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도서관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주요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도서관의 청체를 규명해 내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회칙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서관의 회칙에는 성격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유효한 설립의 목적이 집약되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몇개 도서관의 회칙에 나타나 있는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칙이 없는 도서관도 있으나, 대부분의 도서관의 회칙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비슷하므로 몇개

도서관의 회칙만 살펴 보기로 한다.

일꾼도서관 회칙 제3조. 목적

본회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자신의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부산지역 노동형제들과 지역대중에게 좋은 책과 다양한 매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동자의식을 고양시켜, 참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사람 도서관 회칙 제3조. 목적

본회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참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교양(독서, 교육), 문화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고 참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햇살 도서관 회칙 제2조. 목적

사상지역에 거주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도 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동자에게 좋은 책을 빌려주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보람되게 하여 인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도서관의 회칙에는 그 대상과 방법 및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현황과 특성 및 목적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서서도 조금 언급했듯이 도서관은 완성된 형태라기 보다는 아직은 자기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현상'의 단계<sup>43)</sup>이므로, 성격규명 작업은 하나의 관점으로만 조명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몇가지 관점의 종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을 노동야학의 변형 또는 확대개편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관점은 주로 도서관 실무자들의 일부가 지지하고 있다. 야학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검정고시야학이 대중을 이루었으나, 그 이후 생활지식과

43) 일시적이며, 우발성이 내포된 것을 '사건'이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사건보다는 범위가 기간이 좀 더 큰 것을 '현상'이라고 할 때, 양서협동조합은 의 사건으로, 도서관의 경우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양교육을 목표로 하는 생활야학과, 노동법교육과 주체적 생활교육을 하는 노동야학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노동야학은 다시 그 목적이 사회대중이나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계몽인가, 노동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가, 학내 학생운동의 외부활동인가, 노동자들의 독립된 지식청년운동인가, 노동자들 스스로가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외적 모임인가 등에 따라서 분화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야학은 1987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대중성의 문제, 주체들의 실천속에서의 연대에 대한 문제, 자기전망적 교육과 기초에 대한 문제, 합법적인 공간확보의 문제, 변혁운동과의 결합문제 등 야학이 갖고 있는 한계의 전체적 극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합법공간에서 노동운동과 결합하기 위해 도서관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를 경우 노동야학이 그랬던 것처럼 노동도서관도 목적에 따라 다시 세분될 수 있겠지만, 아직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도서관이 분화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sup>44)</sup>

둘째로는 도서관을 노동운동단체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도서관이 단순히 야학과 형태만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보는 것이다. 도서관의 자료는 노동운동과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각종 행사도 이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노동운동의 공간으로 도서관을 활용한다는 것이다.<sup>45)</sup>

셋째는 도서관이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라는 관점이다. 이 관점 역시 앞의 둘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두번째 견해와의 차이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이 하는 것이며, 도서관은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관점에 설 경우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실무자의 상담자적인 역할이 특히 중요하게 된다.<sup>46)</sup>

44) 이정희, 앞의 글, pp.132-140.

45) 이 관점 역시 도서관 실무자들중의 일부가 지지하는 관점이다. 많은 도서관들이 노동운동단체협의회나 노동조합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도 이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 이 관점은 앞의 관점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도서관이 비록 노동운동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모습이며, 도서관은 효과적인 노동운동의 지원을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넷째는 광범위한 지역주민 대상의 교양문화단체로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도서관을 지역주민운동과 문화운동이 결합된 형태로 보는 관점이다. 여기서 지역주민운동은 특정지역에 생활 근거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주민으로서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발현시켜 나가는 운동으로, 그리고 문화운동은 우리의 공동체문화를 감아먹는 외세문화와 정치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의 문화를 대중과 함께 찾는 길을 모색하는 운동으로 이해된다.<sup>47)</sup>

위의 네가지 관점 중 세번째까지는 도서관을 노동운동단체 또는 노동운동 관련단체로 보았다면, 네번째의 관점은 도서관의 성격을 문화운동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도서관은 노동운동과 문화운동, 지역주민운동 등의 운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책을 매개로 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정리될 수 있다.

### Ⅲ. 도서관 확산의 배경

앞의 제2장에서 도서관의 현황을 조사하고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서관의 정체(identity)에 대한 파악을 시도했다. 아울러 도서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으며, 공공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서 전자는 도서관을 노동운동단체 또는 노

47) 이 관점은 양서협동조합이나 최초의 도서관인 아람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의 초창기에 설립원칙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 일부 도서관들이 이 관점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동운동 관련단체로 볼 경우와 관련되며, 후자는 독서원을 교양문화단체로 규정하는 경우와 관련된다. 여기서 도서관 확산의 배경을 살펴 보는데 또한가지 빠뜨릴 수 없는 측면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위치와 봉사시간대에 관한 점이다. 이 관점은 도서관의 규정에서 파생된 요인들에 못지않게 도서관을 강화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은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관계, 그리고 위치와 봉사시간대의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도서관이 변성하게 되는 요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명은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된다.

### 1. 도서관과 지역사회

여기서는 도서관 확산의 외부적 요인, 즉 사회가 도서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하는 사회적 요인을 살펴본다. 이점은 도서관이 속한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도대체 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노동운동(관련)단체가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에 따른 도서관의 성격변화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문제를 도서관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특수성과 도서관의 관계와 함께 일부 도서관이 최근들어 겪고 있는 성격변화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먼저 도서관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특수성과 도서관의 관계는 대략 이러하다.<sup>48)</sup>

- 부산은 무역도시이며 소상공인이 많다.
- 신발, 가죽산업 등의 많은 공정을 필요로 하는 화학공업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하청을 받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대다수이다.
-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미약하다.

48) 대부분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부산지역의 특수성과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관계는 부산지역 도서관 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개적 지역운동단체인 도서관은 의미를 갖게 된다.

즉, 부산지역에 중소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노동운동의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따라서 단위사업장의 범위를 초월하는 형태의 노동운동 단체가 발달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노동운동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은 최근 움터도서관의 위상전환 움직임과 들불도서관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움터도서관은 양산지역 노동자들의 문화공간으로, 노동자들의 의식향상과 낙후된 양산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노동자들이 좋은 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비치 및 대출사업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이 주인이 되어 운영해 나가는 구조로 건강한 노동자들의 모임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취지로 1990년 10월 29일에 설립되었다. 그 이후로 다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의 활동을 해 오던 중, 1992년 초에 몇몇의 회원과 실무자들 사이에서 도서관 위상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안의 근거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49)</sup>

양산은 400여개의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80% 정도의 노동조합 결성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활동이 경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거지와 일터(공단)의 경계가 거리상으로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타지(부산)로부터의 통근자도 상당히 존재한다. (양산)읍민은 대부분 중산층이며, 빈농은 도서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읍외지역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사업실적으로 볼 때 도서관이라는 다소 종합적 성격을 띠고 있는, 낮은 수준의 '봉사'로는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요구도, 인근 공단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에도 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뚜렷한 위상의 정립 또는 전환의 작업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1992년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7차에 걸친 회원들간의 회의

49) 가칭 양산지역 노동자협의회 준비위원들과의 인터뷰. 1992. 7. 6, 19:00-21:00.  
가칭 양산지역 노동자협의회(구 도서관움터 사무실), 김종성(부산대 대학원), 이병진(양산지역 노동자협의회 준비위원장), 이무현(구 움터도서관 실무자).

이후, 결국은 3월 2일에 도서관 옴터를 「양산노동자협의회」로 위상전환 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옴터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들불도서관 또한 최근 사상공단이 해체과정에 놓이게 되고, 특히 인근에 「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도서관의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주요 대상을 지역의 주부와 사무직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지역주민 사업에 강조점이 놓이게 되었다.<sup>50)</sup>

도서관의 정확한 위상정립의 고민은 옴터도서관과 들불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부산지역 최초의 도서관인 아름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을 '책을 매개로 한 시민의식의 고양'으로 설정했다. 그 이후 아름도서관의 번 성에 힘입어 각 지역별로 많은 도서관이 설립하게 되고, 이들은 노동운동 또는 지역주민운동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띤 채 활동해 오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의 옴터도서관과 들불도서관에서 보듯이 도서관들의 자기위상 정립이 다시 주요문 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들은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조직적 위상과 성격을 개조 해 나가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도서관이 어떠한 형태로든 정착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도서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특 수성이 지속되는 한 도서관은 그 존재의미를 부여받을 것이며, 부산이라는 거대 도시의 성격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도서관은 상당기간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중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개별 사업장의 노동운동이 미약하다는 점 등의 부산지역의 특수성은, 도서관을 노동운동 (관련)단체로 볼 경우에, 단위 사업장을 묶을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형태의 노동운동 단체를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50) 구 옴터도서관 실무자 K.씨와의 인터뷰, 1992. 7. 11. 18 : 00 - 20 : 00. 구 옴터도서관 사무실.

## 2.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한편, 도서관을 광범위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문화 단체로 볼 경우, 도서관의 확산 배경, 즉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는 있으나 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사회적 장치가 없거나, 또는 그러한 장치는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up>51)</sup>

우선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사회적 장치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도서관을 비롯하여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전시장 등과 각종 유흥업소 등이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활동 내용으로 보아 이와 가장 유사한 공적인 사회적 장치는 공공도서관이며,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그 역할을 다 했느냐의 문제는 간단히 취급될 수는 없으며, 제도문제, 예산문제, 시설문제, 자료문제, 직원문제, 봉사문제 등의 복합적인 면에서 깊이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시설과 예산, 자료, 직원과 봉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sup>52)</sup> 규정적 실태와 실행적 실태를 중심으로 간단한 비교를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이 제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할 여지가 있는 부분과 도서관적 현상을 강화시키는 요인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는 시설과 예산의 측면인데, 이 점에 있어서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표면적인 비교는 무의미하다. 공간의 크기, 열람좌석수, 예산규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비길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도서관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도서관에는 몇사람이 토

51) 여기서 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에는 현재적으로 표출되는 요구와 함께 잠재적인 요구를 포함한다. 잠재적 요구는 아직 어떠한 요구가 대중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발현될 것이 확실시되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요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상황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도 형성될 수 있다.

52) 이와같이 세가지 요목으로 나누어 비교를 하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3대 기본 요소가 시설과 자료 및 사람이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만하다. 그것은 단순히 자료의 열람이라는 소극적인 봉사에서 벗어나 이용자에게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게 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토론에 대한 일반인의 요구는 증대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장치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sup>53)</sup> 따라서 도서관이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도서관 강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는 자료의 측면이다. 장서의 규모로 보아서는 통계자료를 원용할 필요도 없이 공공도서관이 월등하므로 도서관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측면, 즉 장서의 내용과 질에서 찾아야 한다. 장서의 내용과 질은 자료의 선정작업의 결과가 축적된 것이다.

현행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는 도서자료,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에 대해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규정 중 이 위원회가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자료선정기구, 자료선정의 방법 및 범위, 그리고 장서구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법규정 현실은 그대로 공공도서관 현실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적은 예산과 규정에 얽매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은 우선은 장서수에 급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관계법령의 미비 뿐만 아니라, 단위 도서관 레벨에 있어서의 창의적인 업무개척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단위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진흥법이나 시행규칙 보다는, 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조례나 교육규칙 등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 해당되는

53)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는 공공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별표1에 명시해 놓고 있다. 나함을 보면 「봉시기준 인구가 2만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시청각실, 회의실, 사무실 및 자료비치 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시민의 토론을 위한 공간에 대한 규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도서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독서상담실 또는 독서토론실 등의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지만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손정표, 박인용, 한두완, 공공도서관 표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협회, 1991. pp.73-75.

지방자치조례나 교육규칙 등이 극히 미미한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도 단위 도서관 레벨의 창의적인 업무개척<sup>54)</sup>과 직원들의 열의가 도서관 발전의 실질적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반면 도서관의 경우는 이 점에 있어서 대조적이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은 물론 행정적인 지원 또한 전무하다. 이런 상태에서도 도서관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바로 실무자들의 창의성과 열의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와 함께 도서관의 이용자를 자료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고 있기도 하다. 도서관들의 월평균 도서관구입비는 7만원에서 8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도서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다. 한 예로 일꾼도서관의 자료선정 과정을 보면, 각 소모임의 대표와 자료이용률이 높은 사람이 도서관선정 위원이 되어 자료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양질의 자료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수렴해 주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반대로 도서관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발전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로 직원 및 봉사의 측면이다. 공공도서관의 직원배치에 대해서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는 「도서관 건물이 330m<sup>2</sup>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330m<sup>2</sup>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m<sup>2</sup> 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직원배치는 이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직원의 법적 기준 달성도는 43.99%에 지나지 않는다.<sup>55)</sup> 게다가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의

54) 여기서,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아니지만 부산대학 도서관이 최근들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창의적인 업무개척 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의 한가지 예로서 주제담당제의 도입을 들 수 있는데, 주제담당제란, 주제전문가 제도의 채택에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예비단계로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개발한 제도인데, 우선 주제를 크게 몇부분으로 나누어 한 주제를 한 사람의 사서가 전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산대학 도서관의 창의적인 업무개척 내용은 도서관 소식(부산대학교 도서관 편, 창간호, 1989. 4; 제2호, 1990. 3; 제3호, 1992. 8)에 집약되어 있다.

비율은 전체직원의 31.9%밖에 되지 않는다.<sup>56)</sup>

이러한 직원의 수적인 빈약함과 함께, 직원배치에 대한 규정은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즉 직원을 배치하는데 있어 1차적 기준을 건물의 크기에 두고 있으며 2차적 기준을 장서량에 두고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봉사대상 인구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건물과 장서의 규모가 봉사대상자 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의 1차적 기준 역시 봉사대상자 수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sup>57)</sup>

수적인 문제와 함께 공공도서관의 직원은 도서관 전반적인 관리능력과 행정적 기능, 전문적 업무기능, 봉사기능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정사서 직원과 기타직원의 구성비율만을 살펴보아도 1:5.2로서 이부분 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8)</sup>

한편 도서관의 경우 사서자격증을 가진 실무자는 찾아 볼 수 없으며<sup>59)</sup>, 실무자수 또한 1-5명으로 대단히 빈약한 실정이다.<sup>60)</sup> 그러나 도서관의 실무자는 공공도서관의 직원에 비해 몇가지 강점도 갖고 있다. 도서관의 실무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회원들과 지역주민의 상태, 즉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소장자료와 이용자의 관심거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투철한 봉사정신까지 곁들

55) 손정표 등, 앞의글. p.26.

56) 문화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1990. p.160.

57) 캠프(H.C.Campbell)은 봉사대상자 수를 중심으로 하여 직원배치의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봉사대상자 2천명에 한사람의 직원이 적정한 수라고 한다.(손정표 등, 앞의글. p.76에서 재인용).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을 보면, 전체 도서관 직원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12,637명,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40,760명, 정사서 직원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약 78,000명 등으로 나타난다.(손정표 등, 앞의글. p.80.)

58)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의 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59) 서울의 난곡도서관은 이점에서는 예외이다. 난곡도서관은 1989년 10월,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의 도서관학과 출신의 7명이 설립한 것으로서, 장서를 KDC에 따라 분류하는 등 여타 도서관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0) 물론 공공도서관처럼 직원수를 단순히 건물과 장서의 규모로만 산출한다면, 이보다는 나은 조건이긴 하다.



여져 있으므로, 도서관의 실무자들은 훌륭한 '주제전문가'로서 봉사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직원의 수적·질적 열세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게 되며, 도서관 실무자의 자질과 봉사정신은 도서관을 교양문화 단체로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고 발전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는 것이다.

### 3. 위치와 봉사 시간대

이와 함께 도서관 확산의 배경으로서 또하나 빠뜨릴 수 없는 측면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위치와 봉사시간대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자리잡은 위치가 각각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도서관의 경우부터 보면, 앞의 도서관 현황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노동도서관이 공단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sup>61)</sup> 교양도서관 역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용자와 더욱 가까운 곳에 도서관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지의 일정한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위치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표출된 부분이 보이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 내에 있는 10개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4개관이 산중턱의 호젓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인식 보다는, 공공도서관은 조용하고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봉사시간대의 차이와 그 이용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본다. 앞장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도서관의 봉사시간대는

61) 아동도서관의 경우는 공단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회원의 대부분이 여러 직장의 사무직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모두 오전 10시에서 밤 10시 전후이며, 본격적인 봉사 프로그램은 주로 저녁시간과 주말에 이루어 지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낮시간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도서관의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 대한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봉사시간대는 도서관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지역주민이 자료를 이용하고 직원으로부터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sup>62)</sup> 정해져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른 각급 행정관청의 근무시간과 일치한다. 이러한 봉사시간대는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민 행정기관과 같게 보려는 다소 전도된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다른 행정기관의 그것과 같게 하는데 하나의 원인제공을 하게 된다.

둘째는 다른 대민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봉사기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특수성에 대한 망각이다. 즉 행정기관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금융기관 또한 현대사회에서 절대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순수하게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요구에만 바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요구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이 일반화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공공도서관이 그러한 요구를 수렴해 줄 것이라는 기대 역시 보편화 된 것은 아닌 상태이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다른 기관처럼 봉사시간대를 낮시간대로 한정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특수성에 대한 망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셋째는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이다. 다음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겠지만, 공공도서관이 봉사대상으로 상정해 놓고 있는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낮시간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즉 이들은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각자의 직장에서 보내야 하며, 이들이 직장 문을 나설 때 쯤이

62) 동절기는 오후 5시 까지이다. 특히하게 시민도서관의 경우는 저녁 8시까지 대출된 자료의 반납만을 처리해 주고 있다.

면, 공공도서관의 서고는 닫히며, 직원들 또한 이미 자리를 비운 시간이 된다. 따라서 이들이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 직원의 봉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봉사시간대에 맞추어 외출 또는 조퇴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로써 많은 사람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접근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결국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개관시간에 여유가 있는 계층, 즉 주부나 학생층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sup>63)</sup>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도서관의 확산요인은 결국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즉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이 그러한 요구를 수렴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도서관의 봉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봉사로부터 소외된 채 도서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느 계층의 사람이며, 또한 그러한 소외를 가져오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

#### IV.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1. 지역주민의 구성분포

앞의 도서관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의 이용자는 지역노동자를 중심

63) 미국의 저명한 도서관학자이자 공공도서관 관장인 프리드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현실을 살펴 본 다음, 오늘날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서 학생층과 주부층에 치중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현재의 구성분포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공공도서관이 이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는 이유로서 다음의 두가지를 지적하였다. 하나는 미국의 공공도서관이 요일별로 개관시간을 달리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직장의 근무시간에 크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의 교육구조가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본다. (모리스 프리드만 박사(Dr. Maurice J. Freedman)와의 인터뷰. 1993. 5. 10)

으로 하여 지역주민과 학생층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이용자현황을 보면, 1990년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일반인이 7,740,260명으로 32.3%를, 학생이 16,229,788명으로 67.7%로서<sup>64)</sup> 학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65)</sup> 또한 여기서 30% 남짓한 일반인 역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각종 문화행사에 참가한 주부들이 통계에 잡혔을 가능성이 크다.<sup>66)</sup> 이처럼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책을 매개로 한 교육문화기관이라는 점에서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계층별 구성에 있어서 뚜렷한 대조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한다. 즉 공공도서관과 도서관이 속한 지역 사회 주민의 계급별, 계층별 구성은 어떠한가, 공공도서관의 현재적 이용자의 계층별 분포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자료와 예산 및 인원 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서비스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어느 계층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 이 절에서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도서관과의 비교를 통해서론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속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계급별 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sup>67)</sup>

- 
- 64) 전국사서협회, *도서관자료집 (1) 공공도서관편* 서울 : 신학문사, 1991. p.16.  
 65) 여기서 부산지역의 이용자 구성 분포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전국의 이용자 통계를 인용했지만, 부산지역의 상황도 이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가정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66) 이 점은 현장 사서들의 모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서, 실적을 위한 무리한 행사위주의 도서관 운영과, 여기에 참석한 주부들을 도서관 이용실적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67) 김석준, 앞의 글. p.52에서 재구성함. 한편 김석준교수는 1992년 12월 12일, 부산 경성대학에서 있었던 지역사회연구회의 월례발표회에서 부산지역의 계급 구성을 자본가계급이 1.8%, 노동자계급이 50%, 구중관계층(자영업자)이 22%, 신중관계층(인텔리 계층과 사무직 종사자)이 1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부산일보 12월 13일자 7면, 부산계급구성 勞動者가 절반.)

< 표 1 > 부산지역 주민의 계급·계층별 구성비율 1988년 현재. (%)

계 급	계 층	(계급)구성비율	계층 구성비율	
자본가계급		1.6		
신중간 계층	신중간관리자층	18.5	3.8	
	인텔리 계층		4.6	
	사무직 종사자		10.1	
구중간계층	비농자영업자층	22.4	20.5	
	자영상인			12.3
	서비스 자영자			3.6
	자영생산자			4.6
	(이중무급가족) 농어민층			(3.8)
노동자계급		53.1		
	판매노동자		4.8	
	산업노동자		41.4	
	서비스노동자		5.5	
	농어업 노동자	1.4		
실업자		4.3		
합 계		99.9	99.9	

이 표와 같이 부산지역 주민의 계급별 계층별 구성분포를 보면 자본가계급이 1.6%를, 중간계층이 40.9%를,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5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표에 나타난 부산지역 주민의 구성분포와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현재적 이용자가 서로 조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도서관의 경우는 어느정도 조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산지역 주민구성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계급인 노동자가 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결코 그렇지가 못하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이 학생계층으로서 이는 공공도서관 봉사의 목적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도서관 진흥법상에 나타난 봉대대상에 대한 규정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도서관의 경우부터 보면, 각 도서관들은 그 목적에 도서관들이 봉사할 대상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즉, '... 부산지역 노동형태들과 지역대중에게' 68), '... 참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노동자에게' 69), '사상지역에 거주하면서 ... 노동자에게' 70) 등과 같이 도서관들은 특정지역의 노동자들을 주된 봉사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들은 계급개념<sup>71)</sup>에 입각해 있으며, 따라서 도서관의 주된 봉사대상은 노동자계급<sup>72)</sup>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봉사대상을 규정한 조항을 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진흥법 제2조 3항에는 공공도서관을 정의하면서 그 대상을 '공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공중이라는 말은 사회의 일반사람이라는 뜻으로 다소 막연한 개념이다. 다만 도서관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육성등에 관한 조항인 동법 제21조 3항의 '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이동도서관

68) 일꾼도서관 회칙 제3조.

69) 일사랑 도서관 회칙 제3조.

70) 햇살도서관 회칙 제2조.

71)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계급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급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생산체계 속에서 점하는 지위, 생산수단에 대한 -대부분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확인되고 성문화된- 관계, 사회적·노동조직 속에서의 역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사회적 부의 몫의 크기 및 그것의 획득방법이 상이한, 사람들의 큰 집단이다. 계급은 일정한 사회경제제도 속에서 점하는 그들의 지위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그 중의 한편이 다른편의 노동을 전유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러한 정의는 대부분의 사회과학 사전에 나타나 있는 것과 일치하는, 계급개념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이다. 김석준의 아래 논문에서도 같은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의 계급구조 분석 시론", 사회과학논총,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5. p.159에서 재인용.

72) 노동자계급이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따라서 생활자료의 획득을 위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상품으로서 임금을 받고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소유자 즉 임금노동자 집단'을 말한다. (김석준. 위의 글. p.160에서 재인용.)

또는 대출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든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각 항목들<sup>73)</sup>로 보아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이 모든 지역주민임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진흥법상의 규정과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층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공부방화와 학생들의 독차지는 결코 최근의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규정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현장의 사서도 학계의 연구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의심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면에서 소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공공도서관 현장이 그 기본 이용자층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을 완성된 이용자의 분포로서 인정해 버린 문제<sup>74)</sup>와, 학계의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공공도서관 이용자인식에 내포된 문제점

앞에서 부산지역 주민의 구성분포와 공공도서관의 현재적 이용자의 분포 사이에는 현저한 괴리가 존재하며, 그러한 괴리현상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추정에 대한 검증은 내리기 위하여, 이러한 현실에 대한 주요한 원인제공자의 입장에 있는 두 집단인 연구자와 현장의 사서가 각각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인식에 내포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또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가. 연구자의 인식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해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이용자연구 부분

73) 이 조항에는 독서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규정하면서 연령별·직업별·계층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등, 취약지역 주민 등의 말을 쓰고 있다.

74) 최근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열람 이용층을 중고생을 배제한 대학생 이상으로 높인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고려 없이 안이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에서 단적으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 전반에 관한 문헌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용자연구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문헌정보학 연구문헌에 대한 주제분석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내포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이용자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글을 통해서 이용자연구의 개념과 필요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이용자연구의 개념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sup>75)</sup> 첫째는 특정도서관의 대출기록이라든가 참고질문의 기록 및 상호대차의 기록 등을 분석한 이용조사로서,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조사하는 경우보다 도서관 운영의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기록물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보이용자가 어떤 연구환경에서 연구상 어떤 정보를 가지며,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이용자연구는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또 정보시스템 설계 및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서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를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고 한다.<sup>76)</sup>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연구의 개념설정과 연구목적은 본 연구와는 방향이 달라보인다. 즉 현재적인 정보이용자만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서 기존에 나와있는 문헌정보학분야 전반의 연구동향과 그 문헌을 주제 분석한 두 편의 논문<sup>77)</sup>을 검토해 보면, 분야별, 연도별 논문업적을 분석한 표에 이용자연구 분야의 논문은 모두 12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78)</sup> 그러나

75) 권은경, "이용자연구의 추이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 도서관학 논집. 제11집(1984).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p.20.

76) 한복희, "이용자연구에 대한 동향분석", 도서관학. 제23집(1992). 한국문헌정보학회. pp.107-108.

77) 엄영애, "도서관학 문헌의 주제 분석",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창립30주년 기념 학술논문집(1989). pp.211-238 ; 한복희, "우리나라 도서관계 연구동향의 수량적 고찰", 충남대학 연구소 기념논문집, 제9권 제2호(1982). pp.567-588.

78) 한복희, 앞의 글. p.583.



여기에 나오는 이용자연구 분야의 논문은 주로 인용문헌색인과 관련된 것으로서, 연구자들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것은 기존의 이용자연구는 현재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일단 도서관에 와서부터 자료를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태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연구의 목적도 정보서비스의 개선과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용자연구는, 이용자인식의 폭을 확대시키고 기본이용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 대해 이들이 도서관에 오기 전의 이해와 요구까지를 그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연구는 도서관에 도착한 이용자의 행태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오지 않는 지역주민 전체의 보편적인 이해와 요구속에서 도서관이 수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찾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올바른 의미의 이용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이용자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적 이용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연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단적인 연구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 문헌정보학 논저의 색인지79)를 분석하여,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 주제어를 검색하는 방법과 여기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 방법은 학술논저의 경우 논문의 제목이 그 논문의 내용을 가장 충실히 드러낸다는 전제하에, 각각의 논문의 제목에 나타나는 용어를 모두 주제어로 잡아주어 주제분석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도서관이란 말이 제목에 직접 나타나거나 또는 공공도서

79) 여기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색인지집은 다음과 같다. 덕성여자 대학교 도서관학과 학생회 편, *도서관학 학술논문 종합색인* 1991;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연합연구회 편, *문헌정보학 제1집*(1992), pp.96-111. 전자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여 간의 학술잡지, 각 대학 논문 및 학회지, 석박사 학위논문 등 약 1960여 항목의 글들을 망라적으로 수록했으며, 또한 대상 시기가 최근의 10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전시기의 학위논문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두 편의 색인지집을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관분야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말(예를 들면 지역사회 등)이 들어 있는 논문들을 가려낸 다음, 이 중에서 이용자연구 관련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논문이 지역사회의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았다.

먼저 「도서관학 학술논문 종합색인」을 개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술 논문은 모두 16편으로, 이를 봉사대상자별로 나누어보면, 어린이(미취학아동 포함)를 대상으로 한 것이 9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2편, 그리고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각 1편이며, 기타 3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 대학원 도서관학과(문헌정보학과)에서 나온 석박사 학위논문은 1993년 1월 현재 모두 516건으로서, 이 중 공공도서관분야는 28건이며, 이용자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학위논문은 10편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이용자 대상별로 나누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4편으로 가장 많으며,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2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편, 기타 3편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이나 특정 연령층에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며, 지역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도서관의 기본이용자가 되어야 할 계층인 시민 또는 주민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용자를 연구한 학술 논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기본이용자의 확보보다는 특수계층 쪽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자연구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위에서 추출된 시민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몇편 안되는 글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례 1> 김세익, “학생으로부터 시민에게로 - 한국 공공도서관의 좌표”, 도서관보 제1호(1982. 9). pp.99-103.

이 글은 공공도서관의 기본이념이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이며 정보센타로서 사회복지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기본이념에 어울리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도서관이 과연 몇개나 있는가 하는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

작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로서 '공공도서관의 본질적인 사명인 지역사회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대명제가 망각되었거나 소홀이 되고 있고, 학생들에게 독점되어 있는 현실'과 '이런 현상이 지역사회의 주민은 물론 도서관 자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구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근본이념에서 출발하여 학생들에 독점된 현실과 굳어진 의식구조의 오류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과 해결방안의 부분에는 역시 현재의 주된 이용자그룹인 학생층을 중심으로하여 제시되어 있다. 우선 그 원인에서는 본질적 의미로서의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빈약한 학교도서관 시설, 학생들의 해방감에 대한 갈망, 가정환경의 영향, 의식의 문제를 지적해 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주된 이용자만을 중심으로하여 그 요인을 추출해 낸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가 될 수 없는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 또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증설, 봉사의 개선, 예산의 확보, 인사제도의 개선 등의 차원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봉사의 개선' 항목에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오게 하기 위한 획기적인 봉사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는 있지만, '성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며 지역주민들의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봉사의 개선'은, 기본적인 이용자 계층이 도서관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2> 정해성, "공공도서관 봉사대상의 확장에 관한 연구", *효대는문집* 제36집(1988), pp.311-332.

이 글은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역할을 되새기면서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이 확장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 이바지하는 기관'이 공공도서관이라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밝힌 다음, 현대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지적 개발과 문화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모든 봉사

를 하는 것'으로 요약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은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 즉 아동, 청소년, 노인, 성인(가정주부 포함), 노인 및 특수시설 보호자' 등이라고 보는 근거를 찾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인에게만 공공도서관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특수계층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자, 노인 등의 특수계층을 위해 점자도서, 녹음도서, 대형활자도서, 우편대출, 방문봉사 등의 필요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역주민의 구성분포와 공공도서관 이용자층의 불일치를 통해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기본이용자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계층으로의 봉사확장을 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다소 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3> 김영신,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층의 이용목적의 문제", *韓南大學校論文集* 제17집(1989). pp.127-139.

이 글은 일반시민들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갖고있는 인식과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서관 이용목적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독서층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들을 찾고 있다. 시민들은 공공도서관을 교양과 지식을 높이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67% 이상이 인식올 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제 이용자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은 시설의 이용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러한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목적의 차이에서, 빈약한 장서나마 활발히 이용해 줄 독서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우리 도서관이 봉착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있다. 이어서 '우리의 문화와 필요에서가 아닌 서양식의 공공도서관을 곳곳에 세우게 된데서' 이러한 문제가 출발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민족은 특유의 향학열과 높은 경제성장으로 독서층이 형성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인 기반이 우리에게도 형성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개선

책으로 개가계와 관의대출 및 마을문고와의 연계활동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 글은 본 논문과 관련하여 한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실제 이용자들의 이용목적에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현재적인 이용자에 초점을 맞추어 온 이제까지의 이용자연구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일반적인 의미의 이용자연구는 현재적 이용자의 이용조사를 통한 이용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왔으며,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문헌이용행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

둘째,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용자연구 역시 현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포괄적인 지역사회의 상태와 전체 지역주민의 이해 및 요구에 대한 분석은 결하고 있다.

셋째,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논저의 색인을 분석하여 본 결과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이러한 글들은 주로 노인과 주부, 장애인 및 아동 등의 특수 계층에 대한 봉사의 확대에 관련된 것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실질적인 봉사대상은 일반시민이어야 함을 지적한 몇편의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또한 색인집을 통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주로 특수계층을 겨냥한 봉사대상의 확대를 논하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이러한 글들은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계층 또는 장애인 계층 등으로 그 봉사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거나,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한 사회교육 활동으로 시민을 유인할 것을 암시하고 있을 뿐<sup>80)</sup>, 지역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봉사의 실질적 대상이 되어야 할 노동자계급에 대한 분석이나 인식은 결하고 있

80) 실제로 공공도서관의 문화행사는 자료이용률의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남, 공공도서관 문화행사가 도서관 이용률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pp.29- 30.)

는 것이다.

다섯째, 연구자들은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이 지역주민의 전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현실의 진단이나 개선책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지역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을 공공도서관이 흡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sup>81)</sup>까지에는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이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이해의 부재 속에서 기본이용자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보아야 한다.

#### 나. 현장사서의 인식

공공도서관의 현장사서가 갖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 사서와의 직접적인 면담이나 설문지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인식조사에서 이러한 방법들이 가지는 일정정도의 한계성으로 인해, 이 논문에서는 간접적인 관찰조사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현장의 사서들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펼치는 각종 행사에 단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펼치고 있는 문화행사들이 주로 지역주민의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현장의 사서가 지역주민중에서 어느계층의 사람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으며 어느계층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근거로하여 여기서는 1989년 현재 문교부산하 전국의 148개 공공도서관에서 국민의 평생교육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회교육활동이 주제별, 대상별로 소개되어 있는 글<sup>82)</sup>을 토대로 하여, 현장사서의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도와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81) 지역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의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82) 권재윤, "전국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주요사례", 도서관. 제45권 제3호. 1990. pp.65-83.

우선 전국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사례와 실시관수 및 그 대상을 옮겨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학 독서교실이 가장 많으며 주부를 주대상으로 겨냥한 각종 강좌들이 많이 눈에 띄임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각종 문화행사가 어느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특정계층별로 문화행사를 실시한 현황을 앞의 <표 2>를 통해서 재구성해 보면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표 3>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1989년 1년동안 펼친 각종 문화행사 중에서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주부 및노인까지를 포함한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가 87%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는 겨우 13%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3)</sup>

83) 여기에 나타난 13% 정도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 역시 실질적인 참가자는 주부나 학생층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가지 정황들로 미루어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이 문화행사를 주관하면서 대상을 일반인으로 상정하였다는 사실은, 비록 작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른 문화행사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조금은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2 > 전국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사례<sup>84)</sup> 1989년도

활동사례	실시관수	실시대상
방학독서교실	122	국교생, 중학생
도서관견학	4	유치원생, 국교생
1일독서교실	20	미취학어린이, 국교생
순회학교 독서교실	4	국교생, 중학생
이야기교실	14	미취학어린이, 국교생
독서지도교실	4	미취학어린이, 초중고 학생
독서발표회	1	학생, 일반
독후감 발표대회	4	학생, 일반
동화 구연 대회	2	국교생
독후감 모집	12	학생, 주부
독후감 쓰기	5	유치원생, 국교생, 중학생
독서퀴즈 대회	2	국교생
독서회 활동	33	학생, 주부, 일반
독서문화 행사	7	독서회원, 학생, 일반
도서전시	3	학생, 일반
다독자 표창	7	학생, 일반
자모 독서교실	4	학생, 자모
컴퓨터 교실	8	학생, 일반
서예강좌	30	주부
꽃꽂이 강좌	12	주부
등공예 강좌	7	주부
레크레이션 강좌	1	주부
영화감상	8	학생, 일반
음악감상	4	학생, 일반
한문강좌	19	주부
일본어 강좌	10	학생, 일반, 주부
영어 강좌	8	학생, 일반, 주부
예절 강좌	2	일반, 주부
분재, 사진교실	2	주부
테니스 강좌	1	주부
노인교실	4	노인
주부교실	13	주부
교양강좌	23	학생, 일반, 주부
백일장	3	어린이, 주부
전시회	8	학생, 일반, 주부
계	411	

84) 편재윤. 앞의 글에서 재구성함.



< 표 3 > 공공도서관 문화행사의 대상자별 분포<sup>85)</sup> 1989년도

계층별	특 수 계 층							일반 계층	계
	유아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학생	주부	노인		
행사건수	50	179	135	4	140	206	4	108	826
비율	7 %	55 %			25 %			13 %	100%
	87 %								

- \* 유아로 표시된 계층은 미취학 아동과 유치원생을 합한 것을 말한다.
- \* 학생으로 나타난 계층은 초·중·고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사이다.
- \* 행사건수에 나타난 수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도서관의 수를 합하여 얻어진 것이다.

한편 특수계층 중에서도 주부층을 겨냥한 문화행사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민학교 학생과 중학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가지 측면에서 풀이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장의 사서들이 학생과 주부가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 버린채, 이 계층을 공공도서관의 타당한 분포로서 인정해 버렸을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에 관련된 문제로서 이 시간에 공공도서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주부와 학생 위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의 반영으로 볼 수도 있다. 즉 현장의 사서는 공공도서관의 타당한 이용자분포가 주부나 학생층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 지역주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개관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을 위주로 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인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만으로 그치고 있으며, 이를 과감히 해결하려고 한 노력면에서 소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단위

85) 권재운, 앞의 글을 토대로 작성함.

도서관레벨의 창의적인 업무개척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이용자인식상의 문제는 이를 단순히 공공도서관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사서들의 봉사정신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점은 공공도서관의 문제를 진단한 현장사서들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 예로서 서울 어느 도서관의 증견사서는 공공도서관의 대중화 방안으로서 '자료와 봉사정신 두가지를 가지고 관 밖으로 뛰어나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지역사회에 도전할 것'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도서관 PR, 봉사정신의 확립, 참고봉사와 시청각 시설의 확충, 순회문고의 운영, 각종 씨름 활동, 문화행사 주관, 어린이 도서관과 주부열람실의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sup>86)</sup>

여기에 제시된 방안들은 현장사서들의 다른 논문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7)</sup> 즉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문제가 사서들의 봉사정신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데까지는 현장사서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도서관에 소속된 계층별 독서회의 수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표 4> 참조).

이러한 사실로 보아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그들의 많은 노력을 주로 학생과 주부를 위한 봉사에 쏟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현장의 사서 역시 연구자와 거의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의 주된 이용자를 학생과 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장사서 역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86) 김영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대중화 방안", 도협월보 제11권 제2호(1970). pp.41-48.

87) 조상현, "공공도서관이 시민에게 접근하는 길 - 체험을 중심으로", 도협월보 제6권 제3호(1965) pp.85-87; 윤재우, "지역사회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문제", 도서관 제35권 제8호(1980). pp.29-31.

< 표 4 > 공공도서관에 소속된 계층별 독서회 수<sup>88)</sup> 1989년도

계 층 별	국고생	중학생	고교생	소 계	주 부	누 계	일 반	계
독서회수	8	9	8	25	28	53	16	69
비 율 (%)	12	13	12	36	41	77	23	100

### 3.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sup>89)</sup>

앞에서 공공도서관의 올바른 이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도서관의 현황과, 공공도서관에 비해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강점을 비교하여 도서관의 확산배경을 살펴 보았으며, 아울러 연구자와 현장사서들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공공도서관의 현재적 이용자는 대부분이 학생층과 주부들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주민의 구성분포와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도서관은 상당 부분 조응하고 있는 편이었다. 공공도서관이 현상의 유지와 담보상태를 맴돌고 있는 반면 도서관은 꾸준히 성장하며 확산되고 있음도 살펴 보았다. 여러가지 조건에서 공공도서관에 비길 바가 못되는 도서관이 이처럼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도서관의 실무자와 공공도서관의 현장사서

88) 권재운, 앞의 글. P.73에서 재구성 함.

89)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의 도서관현상과 관련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학기과정 중에 부분적으로 조명된 적이 있다. 당시의 연구는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흐름속에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현실을 나름대로 짚어본 다음, 공공도서관 이용자층의 현실화를 위해 기본개념을 이론적으로 적용해 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학기과정중에 그 인식이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에 생성된 두편의 논고가 동기부여를 한 셈이 된다. 한편 이전에 제시된 '기본이용자개념'은 '기본개념'의 하위 개념이다. 이 기본개념은 부산대 김정은 교수가 전국사서협회 수련회(전하, 1990. 7. 16; 계룡산, 1991. 5. 4) 등에서 제시해 온 것으로 1992년 1학기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제3세계도서관론'에서 반복 설명된 바 있다. 김영기,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흐름에서 본 문헌정보학의 과제 - 공공도서관 이용자 지평의 확대와 관련하여", 학기논고집(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제2집(1992. 8). pp.1-27 참조.

및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임을 또한 밝혀 보았다. 도서관의 실무자가 상대적으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의 결과이다.

부산지역의 도서관 현상을 통해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 되어야 할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가. 기본이용자 개념의 도입

기본이용자의 개념은 도서관의 존립목적에서 출발되어야 하며, 말 그대로 도서관이 봉사해야 할 기본이 되는 이용자를 말한다. 이 말은 도서관이 봉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여러층 중에서도 좀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용자층이며, 이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이용자 또는 핵심 이용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용자의 부분이 되며, 전체 이용자층의 특정 이용층이 될 수도 있고, 공통된 자료이용 요구를 갖고 있는 여러계층에 걸친 이용자 그룹이 될 수도 있다.

이 개념은 이용자들의 요구가 크고 다양하여, 도서관이 시설과 자료, 예산과 인력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해 주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이나 대학 및 전문도서관의 경우에는 이용자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용자가 도서관에 대해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의 성격이 거의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이 개념은 다소 의의를 잃을 수도 있다. 이 개념이 특히 유효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공도서관이 봉사해야 할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도서관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 전체, 즉 모든 지역주민이다. 사회에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주민들이 혼재해 있으며, 이들이 가지는 이해와 요구는 각각 다르다. 공공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된다. 이처럼 궁극적인 목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 기본이용자 개념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기본이용자란 무엇이며, 현재의 주된 이용자를

공공도서관의 기본이용자라고 볼 수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공공도서관의 주된 이용자는 학생과 주부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계층들을 기본이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어긋난다.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공중이라는 말이 전체 지역주민에 대한 차별없는 봉사를 의미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학생과 주부계층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재의 이용자를 기본이용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주민의 구성분포와 공공도서관의 현재적 이용자의 분포가 전혀 조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 계급으로서 이들은 현재 공공도서관의 봉사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공도서관의 현재적 이용자를 기본이용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학생층의 경우는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시설 이용자이며, 또한 학생들에게는 미미하나마 이들을 기본이용자로 하는 학교도서관이 있으므로 이들을 공공도서관의 기본이용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기본이용자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사서와 연구자들은 이것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공도서관의 관계자가 우선 기본이용자의 개념부터 정립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공도서관이 기본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부산지역 도서관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도서관이 변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수렴하려 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연구, 이것은 공공도서관이 기본이용자층을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본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지역주민 연구

지역주민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기본이용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기존의 이용자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지만, 이용자연구의 핵심적인 영역이 되어야 함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지금까지의 이용자연구가 주로 현재적인 이용자를 주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역주민 연구는 현재적 이용자를 포함하여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말한다.

지역주민 연구는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대한 파악이다. 여기서 요구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공공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현재적으로 실제하는 요구를 말하며,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라는 것은 그들이 현재 공공도서관에 대해 어떤식의 봉사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도서관이 먼저 파악하여 수렴해 가는 적극적인 봉사를 뜻한다. 즉 지역주민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전체지역 주민이 공공도서관에 대해 갖고 있는 현재적인 요구의 파악과 함께 아직 요구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마땅히 제공하여야 할 봉사 부분, 즉 잠재적 요구를 찾아내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주민의 구성분포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지역주민이 계급별, 계층별, 직업별, 연령별 등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각각의 그룹이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중심되는 이용자와 공통된 이해 및 요구를 추출해 낸 다음 이에 맞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연구의 세번째 영역인 지역주민의 상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부분의 한가지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의 기본이용자가 계급적으로는 노동자계급으로 설정되었을 경우라면, 이들의 현실적 여건에 맞게끔 봉사시간대라든가 프로그램 등의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다. 지역사회 연구<sup>90)</sup>

이 부분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특수성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장치의 하나이며,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속에서 그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란 공공도서관이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구체적인 이웃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기본이용자를 발견하고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역사회 연구는 머리속의 이상적인 연구가 아닌 실천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 즉, 지역신문을 탐독하고 그 지역의 구석구석을 걸으면서 몸으로 느끼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책 한권을 샀을 때 어떤 주민에 의해 얼마나 많이 읽히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세는 일부터 시작하여, 그 지역에 속한 회사, 기관, 그룹 등의 요구를 파악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역사적인 배경, 주요산업 현황, 인구밀집지역, 주거환경, 심리적인 특성, 문화적 공통성,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한편 이 부분은 인접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유기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V. 맺 음 말

이 논문의 목적은 부산지역 도서관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인식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90)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드만 박사 초청 세미나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세미나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 세미나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자체의 기술향상을 위해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루어졌으며, 초청된 사람이 미국 뉴욕주의 38개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웨스트체스터 라이브러리 시스템(Westchester Library System)의 관장인 프리드만 박사(Dr. Maurice J. Freedman)이다. 1993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세차례의 공개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그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What Are the Principles of Library Automation?", 1993. 5. 4.; "Who Are Public Library Users?", 1993. 5. 14.; "Why Is Collection Development Important?", 1993. 5. 20.

보는데 있다. 도서관현상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인 현장조사와 도서관 실무자 및 회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인식에 관한 부분은 문헌분석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관 현상의 경우는 선행연구나 조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현장조사나 실무자 또는 회원들과의 면담, 행사선전용 유인물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험적인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층에 대한 세분된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나와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학생, 일반, 주부, 어린이 등의 개념으로만 나타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를 동류개념이 아닌 인접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경제활동 인구나 직업별 또는 계급·계층별 통계자료 등과 비교하여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이다.

셋째, 도서관 활동에 대한 경험적인 내용을 통해 기존의 학문틀인 이용자연구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도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위와같은 문제와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영역을 밝히는 약간의 성과도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은 노동운동과 문화운동, 지역주민운동 등의 운동적 성격을 띤 채, 인근의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책을 매개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공간을 말한다.
2. 도서관의 효시는 1978년부터 다음해까지 존속했던 양서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양서를 조직적으로 권하는 첫 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3. 최초의 본격적인 도서관은 1987년에 설립된 부산 서면지역의 아름도서관이



다.

4. 도서관은 그 성격에 따라 노동도서관과 교양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부산지역에는 현재, 노동도서관이 10개(양산의 움터도서관 포함), 교양도서관이 4개로서 모두 14개의 도서관이 활동하고 있다.
5. 노동도서관은 부산지역 도서관 협의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6. 도서관이 확산하게 된 배경으로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이해 및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최대한 수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이 그러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이 공공도서관의 봉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7. 부산지역의 계급별, 계층별 구성분포는 노동자계급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주된 이용자는 학생층과 주부계층으로 나타났으며, 두부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8. 연구자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연구는 주로 현재적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이용행태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9. 현장의 사서들 역시 현재적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많은 노력을 주로 학생과 주부계층에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장사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방향으로서 기본이용자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기본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가 기본이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참 고 자 료

구 증 자 료

1. 1차 도서관별 방문조사. 1991년 11월. (기러기문화원, 아롬, 일꾼, 삶터, 늘푸른, 일사랑 도서관. 나머지 도서관은 전화 인터뷰).
2. 부산지역 도서관협의회 소속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1991. 12. 2. 아롬도서관.
3. 기러기문화원 원장 조점동과의 인터뷰. 1991. 12. 5. 기러기문화원.
4. 가칭 양산지역 노동자협의회 준비위원들과의 인터뷰. 1992. 7. 6, 19 : 00 - 21 : 00. 가칭 양산지역 노동자협의회(구 도서관 옴터 사무실). 김종성(부산대 대학원), 이병진(양산지역 노동자협의회 준비위원장), 이무현(구 옴터도서관 실무자).
5.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위원들과의 인터뷰,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사무실. 1992. 7. 9, 18 : 40 - 20 : 30. 김희욱(부마항쟁 기념 사업회 회장, 전 양서협동조합 창립위원), 전중근(전 양서협동조합 조합원, 아롬도서관 설립자), 민형기(부산공업대학교 도서관 사서).
6. 구 옴터도서관 실무자 K.씨와의 인터뷰, 1992. 7. 11. 18 : 00 - 20 : 00.
7. 청십자도서관 실무자 유봉상과의 인터뷰. 청십자도서관 사무실, 1992. 10. 13. 18 : 30 - 19 : 10.
8. 2차 도서관별 방문조사. 1992년 12월(청십자, 옴터, 일사랑, 늘푸른, 햇살, 삶터, 들불 도서관).
9. 도서관별 전화인터뷰. 1993년 3월.

문 서 자 료

90년 일꾼 사업현황 (일꾼도서관, 1990년도. 1페이지)

91년 상반기 일꾼도서관 정기총회(정기총회 준비제안서, 일꾼도서관. 1페이지)

91년 일꾼 사업계획 (일꾼도서관, 1991년도. 1페이지)

도서관 활동평가 (움터도서관, 1991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 도서관 회칙

일꾼도서관[1992]

일사랑도서관[1992]

햇살도서관[1992]

### 도서관 소식지

감은소리 광장도서관 글터분과. 제3호(1991. 6).

광장 광장도서관. 제10호[1992].

그루터기. 늘푸른도서관. 창간호(1990. 9).

목소리. 들불도서관. [1991].

삶터. 삶터도서관. 제4호[1992].

아름. 아름답도서관. 제2호(1991. 11), 제5호(1992).

일꾼. 일꾼도서관. 제12호[1991], 제15호[1992].

일사랑. 일사랑도서관. 제4호[1990], 제11호[1991].

햇살. 햇살도서관. 제4호[1990].

도서관에 대한 자체평가서(가제, 도서관운동 발생의 기원, 도서관을 바라보는  
몇가지 견해 등이 나타나 있다). 필자 및 연도 미상. 5페이지.

도서관 활동일지 (1990년 10월 29일 도서관 움터 개원일부터 1992년 3월 15일  
양산지역 노동자협의회로의 위상전환을 위한 2차 준비모임까지). 3페이지.

도서정보 준비호(1991. 5). 16페이지.

도서정보지발간제안서 (도서정보지 발간의 의의, 내용, 발행의 주체, 규모, 재정 등이 주요내용이다). 필자 및 연도 미상. 1페이지.

야학비판. 미간본 팜플렛. 1982.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갑니다. 기러기문화원, 1991. 2페이지.

월간 우리동네. 통권49호(1991. 11). 기러기문화원. 8페이지.

작가와와의 만남. 부산지역 도서관협의회, 1991. 포스터.

제3회 부산지역 청년문화 대동제. 준비위원회. 1991. 포스터.

지역문화센터 구입비마련을 위한 서화도예전. 기러기문화원, 1991. 4페이지.

평생교육강좌 회원모집. 기러기문화원, 1991. 2페이지.

프리드만 박사(Dr. Maurice J. Freedman - Director, Westchester Library System, New York) 세미나 발표 요지. 부산대학교 도서관. 1993. 5. 2.- 5. 22. "What Are the Principles of Library Automation ?", 1993. 5. 4. ; "Who Are Public Library Users ?", 1993. 5. 14.; "Why Is Collection Development Important ?", 1993. 5. 20.

## 논문

권재윤. "전국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주요사례(1989년도를 중심으로)", 도서관. 통권 제308호(1990). pp.65-83.

권은경. "이용자연구의 추이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 도서관학 논집. 제11집 (1984). pp.19-41.

그레이, J. D., 김효정 역. "독서의 과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측면", 도서관. 제 45권3호(1990). pp.39-49.

김석준. "부산시의 계급구조 분석 시론", 사회과학논총. 제4권1호(1985). pp. 153-189.

김석준. 경제변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계급적 대응 -198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세익. "학생으로부터 시민에게로 - 한국 공공도서관의 좌표", 도서관보 제 1호(1982). pp.99-103.

- 김영기. "부산경남지역 도서관운동의 실태", 학기논고집(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제1집(1991). pp. 134-143.
- 김영기.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흐름에서 본 문헌정보학의 과제 - 공공도서관 이용자 지평의 확대와 관련하여", 학기논고집(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제2집(1992. 8). pp.1-27.
- 김영모.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몇가지구상", 도서관. 제35권 3호(1980). pp.35-43.
- 김영신.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층의 이용목적의 문제", 韓南大學校論文集 제17집(1989). pp.127-139.
- 김영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대중화 방안", 도협월보. 제11권2호(1970). pp.41-48.
- 김용부. "직장인의 독서실태와 독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도협월보. 제16권7호(1975). pp.203-210.
- 김정남. 공공도서관 문화행사가 도서관 이용률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 김중환. "미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분석", 도서관문화. 제29권5호(1988). pp.10-18.
- 문화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1990.
- 박옥화. "미국의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성인교육봉사의 변천", 도서관. 제46권6호(1991). pp.3-15.
- 배영활. "공공도서관의 문제점과 현황과 이에 따른 발전방향", 도서관인의 맥(창원전문대학도서관학과). 제5집(1992). pp.12-31.
- 부산대학교 도서관 편. 도서관소식. 창간호(1989. 4), 제2호(1990. 3), 제3호(1992. 8), 제4호(1993. 2).
- 손정표, 박인웅, 한두완. 공공도서관 표준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1991.

- 엄영애. “도서관학문헌의 주제분석”, *이화여대도서관학과 창립30주년 기념학술논문집*. 1989.
- 윤 영. “지역사회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봉사”, *도협월보* 제12권 9호(1971). pp.273-275.
- 윤재우. “지역사회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문제 - 천안시립도서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도서관* 제35권8호(1980). pp.29-31.
- 윤정기.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도서관* 제45권 3호(1990). pp.28-38.
- 이정희. “노동도서관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역과 노동* 제8호(1990). pp.132-140.
- 정해성. “공공도서관 봉사대상의 확장에 관한 연구”, *경대논문집* 제36집(1988). pp.311-332.
- 정춘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 - 수량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동의논집 - 인문사회과학편* 제15집(1987). pp.207-227.
- 조상현. “공공도서관이 시민에게 접근하는 길-체험을 중심으로”, *도협월보* 제6권3호(1965). pp.85-87.
- 한복희, “이용자연구에 대한 동향분석”, *도서관학* 제23집(1992). pp.107-125.
- 한복희. “우리나라 도서관계 연구동향의 수량적 고찰”, *충남대인문과학 연구소 논문집* 제9권, 제2호(1982). pp.567-588.

## 단행본

- 덕성여자 대학교 도서관학과 학생회 편, *도서관학 학술논문 종합색인*. 1991.
-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연합연구회 편. *문헌연논집* 제1집(1992).
- 일송정편집부 편. *학생운동 논쟁사*. 서울 : 일송정, 1988.
- 전국사서협회 편. *도서관자료집 (1) 공공도서관편*. 서울:신학문사, 1991.
- 정필모, 오동근. *도서관 문화사*. 서울 : 구미무역, 1991.

지역사회문제 자료연구실 편. 부산지역 현실과 민중생활 부산 : 들샘, 1990.

친구출판사편집부. 철학사전 부산 : 친구, 1987.

통계청. 1991 경제활동인구연보 1992.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편. 부산지역 실태와 노동운동(조사연구총서, 8).

서울 : 민중사, 1986.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사전. 서울 : 풀빛, 1990.

## Problems in Defining Public Library Users as Viewed through the 'Book-Room' Phenomenon in Pusan

Kim Young Ki

### <Abstract>

This study, that is made by an on-the-spot survey and a library survey, is aimed at finding some problems in the recognition regarding public library users and suggesting the clue to solve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way of having compared with 'Book-Room' and Public Library.

Poor material was always a troublemaker in this study. Especially the part of 'Book-Room' phenomenon is wholly dependent upon a field survey, that is, interview with a 'book-room' clerks, gathering the advertising leaflets, a close observation on 'Book-Room', etc. There are little printed materials, much less precedent research theses. In the other parts of this paper, there are needed good statistical materials, but the notion presented in the public library user statistics—for example pupil, students, housewives, old men, the generality of people, etc.—is so vague that it is insufficient and unhelpful for this study.

In my judgment, with all these limitations, this article gets some results as follows :

1. 'Book-Room' is the cultural organization which is being operated by, for, of the community inhabitants and it takes on the character of movement - labor movement, cultural movement, and community movement.
2. The pioneer of the Book-Room is 'Yangso Hyupdong chohap' (which means good book - cooperative association) lasted from



1978 to the next year.

3. 'Arom'(means learning) Book-Room is the first real Book-Room at Seomyon district in Pusan established in 1987.
4. Book-Room can be classified by its character as 'Labor Book-Room' and 'Cultural Book-Room'. There are 10 Labor Book-Rooms and 4 Cultural Book-Rooms in Pusan.
5. Labor Book-Rooms organised themselves to 'Labor Book-Room conference'.
6. Book-Rooms have done their best to extort the needs and interests of the community inhabitants, but relatively public libraries do not, hence the majority of residents are neglected from the public library service. This is at Book-Rooms' back to have been spread so quickly.
7. There is a very large gap between the component ratio of community inhabitants by class and that of public library users by same criterion, that is,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labor class goes beyond a half point, in the latter, the majority of public library user is composed of students and housewives.
8. Researchers and librarians have concentrated their attention and effort not upon whole residents in community but upon existing users at present time. They do not try to develop potential users. So, researchers' and librarians' recognition regarding the public library users needs to be changed.
9. The concept of 'core-user' may be the key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with public library users.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core-user',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ommunity and inhabitants.